최근 빌린 빚 많아도 개인회생개시신청 가능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에 빌린 대출이 좀 많은데, 만일 법원에서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일부러 안 갚고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통해 면책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면책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은 이미 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채무를 일으켜놓고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 받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시에 회생절차를 밟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초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시금 신규대출을 일으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게 된다. 그 사이 뚜렷한 소득의 증가가 없는 한, 신규대출 또는 차용한 금전의 변제일이 다시 다가오면 그보다 고이율의 추가 대출을 이용해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지급불능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지 최근에 빌린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인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개인회생개시신청일 전 약 1년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에 사용됐다면 단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결정).

물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미 그 당시 변제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무의 사용처가 단순 사치성 소비나 오락, 여행, 도박 등과 같이 성실한 채무자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법 제595조 제7호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규정은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한 경우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사치성 소비, 오락, 도박'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회생절차는 상석에 판사석이 있어 소송당사자가 재판부를 우러러보게 하는 일반 법정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법관과 채무자, 채무자의 변호사, 관리위원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채무자에게 이 회생절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단지 법조문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만을 가지고 기각 여부를 선제적으로 단언해선 안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적인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美 주간거래 중단 반년… 그래도 신중히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차트는 움직이는데 왜 거래는 안 되죠?", "아직 주간거래 재개가 안 돼서요."

설 연휴 동안 모 증권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국내장이 쉬는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은 한동안 미국 주식에 쏠렸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에 미국증시의 출렁임은 파도 같을 때가 많았다. 특히 AI(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였다.

일찍이 서학개미가 된 국내 투자자나, 투자 소식에 밝은 서학개미들은 주간거래가 멈춘 지 반년이나 흘렀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미국 주식 시장 투자에 관심을 둔 '초보 서학개미'들에게는 거래는 안 되는데 움직이는 차트가 신기할 법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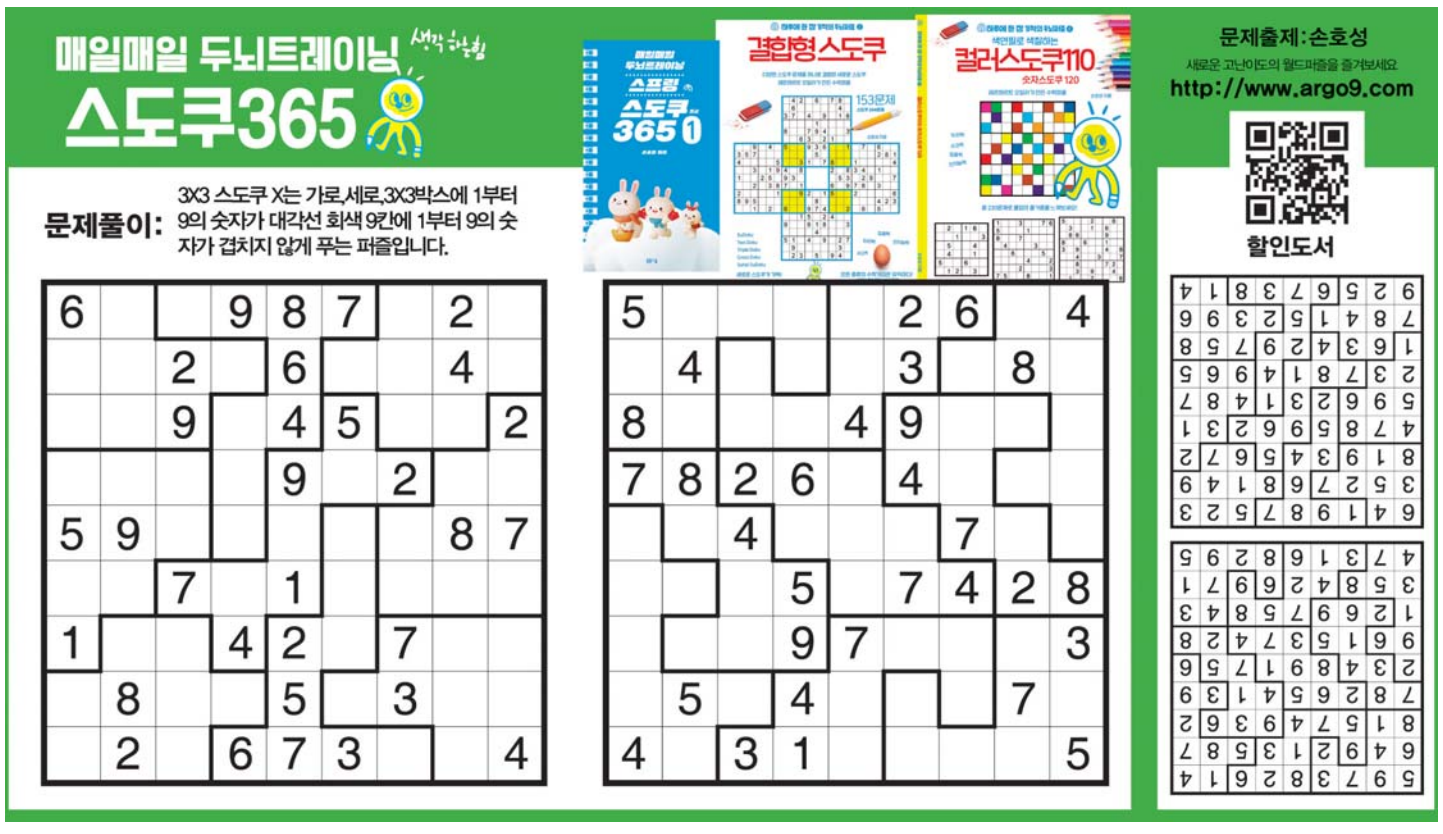
'블루오션 사태'는 지난해 8월 5일(한국시간) 주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체결 시스템 셧다운으로 인해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된 거래가 일괄 취소되면서 국내 19개 증권사에서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거래 금액이 취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주간거래 재개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증권사들도 명확한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아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블루오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국내 증권사들이 많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정규거래소 중 처음으로 야간거래(한국 기준 주간거래) 승인을 받은 24익스체인지(X)가 게임체이저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이들은 국내 주간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시세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간거래를 기대하는 서학개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소식이라면 블루오션이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블루오션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일환으로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고 밝혔고 여의도에 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자사 과실 없음'으로 거부한 블루오션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점점 증가하는 서학개미들의 원활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는 느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48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60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72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한발도 나서지 마라. **84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37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49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61년생** 지나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73년생** 어제까지 과거이니 마음 비우고 힘찬 각오로. **85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38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5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겠다. **74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된다. **86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3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63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 한눈팔지 마라. **75년생** 성공은 좀 시간이 있어야 한다. **87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40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야. **52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6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76년생** 식당에 가서 반찬 투정하려거든 직접 해서 먹든가. **88년생**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지냄.

41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3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65년생**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77년생** 보이는 양보다는 질을 따지고 물건을 구입. **89년생** 밖에는 전쟁터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42년생 호사다마라 했으니 힘내도록 해야.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66년생** 자신을 격려하라. **78년생** 꾸준히 일하다 보니 저축이 되고 세상은 아름답다. **90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4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5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67년생** 오늘의 불운을 어제의 교만이다. **79년생** 친구들과 노느라 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1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4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56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편하다. **68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일이다. **8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 **92년생**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니.

45년생 토끼의 덫에 걸리는 상황이니 매매할 때 특히 조심을. **57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순조롭다.

46년생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58년생** 온종일 교통안전에 유의를. **7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2년생** 진정한 실력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94년생** 감개무량(感慨無量)한 하루.

47년생 여러 사람의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59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1년생** 하나를 뿌리고 두 개를 얻는 날. **83년생** 값싼 것이 갈치자반으로 싼 게 비지떡. **95년생** 아는 것도 없이 남을 무시하다가 큰코다치니.

김상회의 四季

행운은 어디에 ①

행복과 행운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행복은 분수의 기본값이 되는 분모와 같은 느낌이라면 행운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따라 변동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즉 행운은 뭔가 인생 행복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다. 10년도 훨씬 전에 필자는 '행운을 부르는 특급 비결'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때때로 심오한 전문적 해석과 통변의 묘가 필수적인 사주 감명에 비하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좋은 기운을 유발하는 생활의 팁을 가볍게 서술한 저서다. 여기에는 공통된 관습적 행동 양식이나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풍수나 동북아 특유의 문화배경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보고 들어온 통념이자 관습적 사고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다. 개운의 시작은 잠을 잘 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충분히 역학적 견지에서 천살방향을 피하라지만, 화장실이나 문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는 것은 생활 풍수적으로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화장실 쪽 벽면에 붙박이장이나 장롱 같은 큰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또 괜찮게 본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마주 보이는 곳에 거울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도 문을 통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간다는 이유인데,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거울의 반사작용이 입력된 까닭으로 본다.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 생활 풍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면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의식이 마음에 한 번 자리 잡게 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강단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